

“미운 오리새끼요? 친구들이 오히려 부러워해요”

⑩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나주 남평초

지난 12일 오전 나주시 남평읍 남평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 수업이 시작되자 칠판 옆 대형 TV화면에 노란색 새끼오리 한 마리와 일곱 마리의 까만 새끼오리를 담은 사진이 등장했다. 오리 일곱 마리가 한데 어우러져 노닐고 있는 것과 달리 노란 오리는 홀로 떨어진 곳에서 무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망울을 지켜보던 주홍성(45) 교사가 “노란색 오리의 기분이 어떨까요?”라고 묻자 학생들은 “왕따. 놀림을 받고 있다. 같은 오리인데 왜 안 끼워주는지 억울하겠죠”고 입을 모았다.

주 교사가 “노란색 오리처럼 외톨이가 되거나 놀림을 받았던 경험 있나요?”라고 묻자 학생들은 저마다 “토끼 이빨이라고 놀렸어요. 키 작다

갖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수업을 통해 다문화 2세들이 달라지고 있다.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릴 때부터 ‘놀림거리’가 됐던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통해 ‘어머니의 나라’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 학교 다문화 2세들은 감춰왔던 어머니의 출신을 이제 터놓고 얘기한다.

일본인 어머니를 둔 박대현(10)군과 필리핀 출신의 어머니를 둔 송명환(10)군은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다. 둘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출신을 말하기 꺼렸다. 박군은 “친구들이 저에게 ‘일본인’이라고 놀려서 말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친구들이 오히려 저를 부러워해요”라고 말했다.

송군도 부쩍 성장했다. 필리핀 어머니를 뒀다는 작은 놀림에 말수가



지난 12일 나주시 남평읍 동사리 남평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에서 학생 22명이 ‘나와 너, 같은 듯 다른 우리’라는 주제로 다문화교육 연구수업을 받은 뒤 함께 모여 활짝 웃고 있다. 이날 학생들은 사진자료 발표와 역할극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방법 등을 배웠다. /나주=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서로의 차이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 배워

어머니 나라 자긍심…“이젠 부끄럽지 않아요”

고 놀림을 받았어요”라고 경험을 이야기했다. 주 교사가 “친구들끼리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하자 학생들이 일제히 머리를 끄덕였다.

주 교사는 분필로 ‘나와 친구들의 다른 점’을 알고 서로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란 문장을 칠판에 적었다. 수업주제는 ‘나와 너, 같은 듯 다른 우리’였다. 22명 학생은 따라 읽으며 공책에 푹푹푹 적었다.

이는 전라남도교육청지정 다문화교육 연구수업의 한 장면이다. 지난해 3월 지정된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는 나주 남평초와 보성초 두 군데로, 수업 중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표에 ‘다문화’시간을 따로 두어 전학년 학생들이 2주에 한 번씩 수업을 받고 있다. 수업 프로그램은 세계 민족의상 입기, 다문화 독서 퀴즈, 역할극으로 다문화 학생 이해하기 등이다. 모두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자는 취지다.

주 교사는 “일반 학생들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문화가정 학생은 편견을 극복하고 어머니 나라에 대한 문화적 자부심을

줄고, 공부에 흥미를 잃었던 송군은 ‘다문화 수업’을 통해 어머니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 그는 “예전엔 엄마가 학교 배려해주는 것도 싫었는데, 학교 방송에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라고 엄지를 치켜 세웠다. 남평초 4학년 1반 학생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달라서 싫다’가 아닌, ‘달라서 좋겠다’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깨닫고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소수’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던 다문화 2세들은 이제 부러움의 대상이다. 한국인 어머니를 둔 같은 반 친구 이슬비(10)양은 “대현이가 부러워요. 일본에도 자주 갈 수 있고, 일 본어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라고 말했다. 조병진(10)군도 “다문화 가정 친구들을 놀린 적이 있지만 이는 부러운 마음에 그런 것이예요. 생김새가 다를 뿐 모두 같은 한국인이 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문화 수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현재 전남지역 전체 학교는 초·중·고 834개교. 이 중에서 다문

화 2세들이 1명이라도 있는 곳은 568개교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다문화 시간을 수업중에 편성, 학생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지만 대부분 학교는 국어나 사회 시간에 관련 내용이 나올 때만 ‘간단한’ 언급하고 넘어가는 실정이다.

전남의 한 교사는 “다문화 교육의 방법을 잘 모르겠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을 지 고민”이라며 “올바른 교육이 아니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정은 광주도 마찬가지다. 광주지역 초·중·고 295개교 중에서 광주문화초와 주월초 2개의 연구학교를 포함한 13개의 중심학교가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개의 연구학교를 제외한 중심학교에서 진행하는 다문화 교육은 정식 수업이 아닌, 방과 후에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반 학생들과 함께하는 수업이 아닌, 다문화 2세 학생들만 따로 모여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또 다른 차별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연수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수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자료를 보급하고, 이를 통해 일반 수업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에도 전남에서는 834개교에서 각 한 명씩의 교사들이, 광주에서는 교사 40명이 희망에 따라 다문화 직무연수를 받을 계획이다.

전남교육청 왕명석 장학사는 “현재 연구수업을 통해 다문화 교육 자료를 발굴하고 있는 과정이며, 아직 초기라 전면 실시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앞으로 좋은 사례를 연구·발굴하고 각 학교 상황에 맞춰 교육을 한다면 다문화 2세들이 ‘편견과 차별’을 겪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수현기자 yang@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작성됐습니다.

지역내 다문화 연구학교 4곳뿐 맞춤형 교육 시스템 도입 시급

국제결혼 급증 등의 여파로 광주·전남지역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속한 학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가 ‘다문화시대’에 걸맞는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초·중·고교 834곳 가운데 다문화가정 2세들이 재학 중인 학교는 568곳(68.1%)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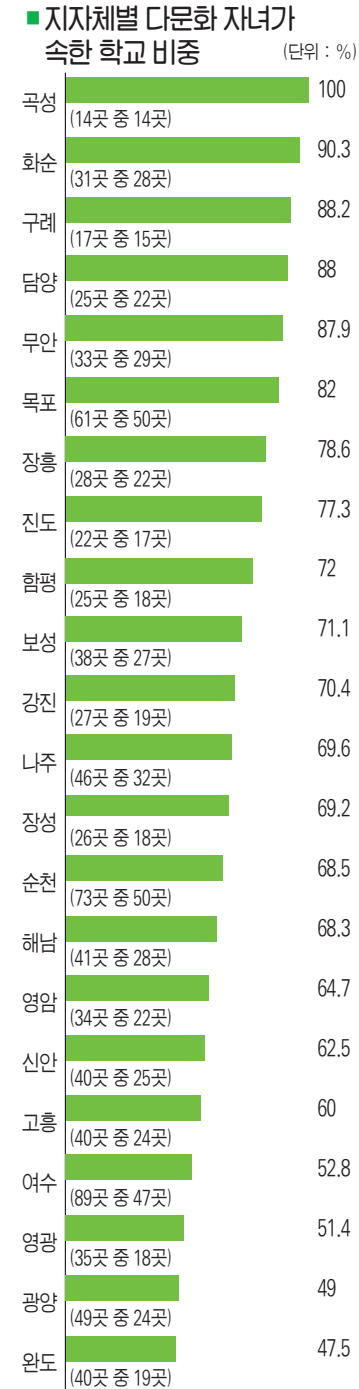
특히 곡성군은 전체 초·중·고교 14곳 모두에 다문화 2세들이 속해 있다. 곡성군의 경우 전체 학생 3382명 중 111명이 다문화 2세로, 학교별로 각각 1~15명씩 재학 중이다.

화순군은 전체 학교 31곳 중 28곳(90.3%)에 다문화 2세가 다니고 있

으며, 구례는 학교 17곳 중 15곳(88.2%)에 다문화 자녀가 속해 있다.

이어 담양은 25곳 중에서 22곳(88%), 무안은 33곳 중 29곳(87.9%), 목포는 61곳 중 50곳(82.9%) 등으로, 다문화 2세가 속한 학교의 비중이 높았다. 또 전남은 광양(49%·총 49곳 중 24곳)과 완도(47.5%·총 40곳 중 19곳)를 제외 한 20개 시·군에서 다문화 2세가 속한 학교의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의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의 일부 초등학교에서만 다문화 교육이 이뤄지고 있을 뿐, 중·고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전문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남지역의 중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자녀들은 450명으로, 3년 전인 2007년(113명)에 비해 4배 가량 늘었다. 다문화 고교생도 2007년 23명에서 현재는 106명으로, 4.6배 가량 급증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에서 ‘다문화 연구학교’로 지정된 곳은 광주 문화초·주월초, 나주 남평초, 보성초 등 초등학교 4곳 뿐이어서 중·고교에 대한 다문화 교육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다들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완비)

- ◆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 일	영 업 시 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 업 시 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 ~ 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 ~ 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생각보다 좋은 비누 평미인

평미인은 (사단) 아세아태평양 자연 의과학 연구재단에서 제조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우리 몸 속 70% 물과 외부에서 씻는 물을 동조시켜 피부통로를 열리게 하여 몸속의 필요없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나오게 하는 원리 입니다.

- ✳ 주요성분
 - 특수 숙성된 식물성 유지
 - 살구씨 오일 및 분말
 - 100% 천연향 로즈마리
 - 천연신소재 HJ-1.2
 - 글리세린
- ✳ 사용범위
 - 모든 환자의 전신 목욕
 - 유아목욕, 노인 냄새 제거
 -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 잡은 화장을 하는 여성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 환자를 많이 다루는 사람
 - 피부질환(아토피, 여드름, 무좀, 습진, 비염)
 - 치질로 고생하는 사람

비누 사용시 유의사항

- 5분간 2회 이상 비누 맛사지
- 보관시 다른 비누와 따로 보관
- 처음사용시 5분 2회 손 * 발 맛사지 후 사용

광주·전남·북 판매점/판매원 모집

상담문의 ☎ 010-3231-3665

먹어야 해결된다. 여성탈모, 무모, 이제 고민 끝!

여성전용 먹는 탈모제품의 특징

그동안 남모르게 고민해오던 여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고 있어 화제다. 여성의 탈모의 원인은 모낭의 영양결핍입니다. 남성의 탈모의 원인은 모낭위축입니다. 원인이 다르면 제품도 달라져야겠죠? 모근에 영양공급이 빠르고 강아서 해결될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먹는 방법입니다.

머리카락이 굵어지며 배꼽아래 체모가 풍성해진다.

(통신판매인고증 제19-5301호)

대히트 오래~ 오래~ 신상품 룽~링

남자의 발기능력은 자기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소하고, 빠르고, 힘이 없고, 남성의 3대 고민은 오래~ 오래~ 룽~링으로 개선하자. 자동으로 흔들어 주고 떨어주며 룽링은 소프트하고 무게감이 없고 반영구적이며 위생적으로 탁월하여 여성으로부터도 호감을 받습니다. 생노병사 불노장생 책을 드립니다.

전지동

특, 대, 중, 소 4개 1Set 88,000원
스탠드업 대, 소 추가 50,000원
합계: 138,000원

본 제품은 의료기가 아닙니다

02-2068-4142 010-3518-8995

02-2068-4143 010-3611-8272